

김한길 대표 '통합신당론' 언급 파장

'범여권 결합' 연결고리 될까

'헤쳐모여' 선언... 당내 갈등 고조 예상

여당 주도 정계개편 방향 제시
노대통령과 차별화 사전 포석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은 여당 내부에서의 통합신당 논의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측면에서 범 여권의 정계개편 논의가 급류를 달 전망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정계개편 논의는 정기국회 이후 질서있게 전개해야 한다'는 내부부족 합의를 무력화 한 것은 물론, 통합신당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측면이 강해 소위 '당 사수' 및 '재 창당파'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첫 머리에서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우리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만한 의미있는 정치실험이었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이제는 정치실험을 마감하고, 지켜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 또 한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일단 무수한 시행착오와 내부갈등 속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데 대한 '자성'의 측면도 있지만 정계개편 논의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완곡한 어법이지만 당의 발전적 해체와 통합신당 창당이라는 큰 흐름을 명료하게 제시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당 창당은 곧 정치실험'이라는 점의 아래 '정치실험의 마감'을 강조한 것은 당 해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한

편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라는 표현으로 통합신당 창당을 적극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특히, 당의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라는 점은 당내 정계개편 논의의 흐름에 해기를 박고 통합신당론을 공식화, 대세를 굳히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날 연설에서 김 원내대표가 통합신당론을 강조하며 정계개편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여기에 김 원내대표가 통합신당론과 함께 꺼내든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론'은 정치권 전체의 새관짜기 논의를 여당 주도로 만들어 나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과 관련, 당내에서는 친노와 반노세력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통합파로 분류되는 전남지역 모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은 사실상 정계개편의 방향을 제시한 측면이 크다"며 "일단 내부 갈등은 있겠지만 이제 대서는 통합신당"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맞서 김형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정계개편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며 견제에 나섰다. 친노 직계인 이화영 의원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경쟁적으로 당 흔들기에 나서는 것 같다"고 폄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7일 오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정배 "신당논의 주도권 당이 행사할"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7일 당내 정계개편 논의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과 관련, "과도한 대통령의 마음이나 영향력이 노출된다면 결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문제는 주로 노 대통령 임기 이후의 정치적 장애와 관련된 일이다. 대통령도 그런 점을 고려해 논의의 주도권을 당에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계개편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친노(親盧) 그룹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논의의 주도권이 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與 개헌론 제기 속셈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 시기가 일치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도입 등의 개헌론을 제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개헌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의원 수가 개헌 저지선인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란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개헌론은 고건 전 총리가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데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범여권 통합'에

연결 고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핫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개헌에 대해 국민의 반응도 부정적이지 않은 데다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이 나서 개헌론을 주장한다면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을 고립시키고 내부적 갈등을 유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헌 문제와 관련, 고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미 고건 전 총리는 개헌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국가의 권력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중임제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맞추는 정도의 개헌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여권의 개헌론은 정치권을 흔들며 정계개편 및 대선 구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불순한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며 '현 정권 내에서의 개헌 논의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여당의 개헌론은 개헌을 빌미로 정계개편을 정당화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 대선 의식 '친호남정책' 계속

내일 전남서 '성공적인 F1 대회 간담회'

내년 대선 등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친(親) 호남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9일 전남도청 상환실에서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과 광주·전남지역 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F1 대회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 소장과 광창규 여의도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참석해 전남도 관계자, 지역 학자 등과 머리를 맞대고 2010년 영암에서 열린 F1대회의 성

공적인 추진 방안을 찾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F1 대회 성공의 근간이 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 행사에 참석, 전남도의 F1 대회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최근 희미하게나마 호전되고 있는 지역의 지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북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靑이어 국정홍보처도 문화일보 구독 중단

청와대에 이어 국정홍보처도 문화일보에 연재 중인 소설 '간담자'의 선정성을 이유로 이 신문의 구독을

중단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7일 밝혔다. 김 홍보처장은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 도중 "구독중단 사유는 청와대와 같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내부 의견을 모아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만기 출소 이근안씨 남은 여성 건강하길" 김근태 의장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7일 자신을 혹독하게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의 만기 출소를 맞아 "남은 여성 건강하길 바란다"며 답답한 소회를 털어냈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지난 시기에 악명이 높았던 이 전 경감이 출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감회를 밝힌 김 의장은 지난 85년 민주화추진위 사건과 관련,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았다.

그는 먼저 작년 2월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씨를 면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전 경감이 면회 당시 용서를 빈다고 말했는데 '진심으로 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80년대 중반 무참하게 짓밟혔던 악몽이 되살아났다"고 심경을 털어냈다. /임동욱기자 tuim@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 이제 전문 법무사와 상담 하십시오!
- 개인회생·파산전문 김성근 법무사
- 개인회생·파산전문 주기성 법무사
- 개인회생·파산전문 박종옥 법무사
- 부동산·법인·상업등기 전문 송중원 법무사
- 개인회생·파산전문 운재효 법무사
- 개인회생·파산전문 희망법무사 사무소 이상준·남종우 법무사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56명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량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차별화된 전문 교수진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속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평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김지선 교수

공무원 쉽게 하차
www.mdoos.co.kr
2007년 4-5월 국가직 시험 실시예상
11월 수시접수중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취 222-4560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대비강좌
N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편입, 약대, 안의대편입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취 개강:11월1일 ☎ 227-8088

FURSYS 가 만든 의자는 다릅니다
퍼시스의 축척된 노하우로 만든 첨단 메카니즘의 전시리즈
NAVER 에 한보가구를 쳐보세요
JOY SERIES
REPLY SERIES
ESPERA series
FURSYS 퍼시스남광주전시장 (062)225-5100